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11일 목요일 음 6월 9일 (1물)

기상정보

호림

제주도는 장마전선이 소강 상태에 들며 흐린 날씨가 되겠고 곳에 따라 한 때 비가 내리겠다. 아침 기온은 21~22°C로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은 25~27°C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4.0m로 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20%
30%	성산	20%
30%	고산	20%
3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22/27°C
모레	흐리고 비 22/26°C

생활·안전 기상정보

해돋이 05:32

달몰림 14:30

해질 19:46

달짐 01:12

뜰때 19:30

간조 12:41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주의

매우높음

월드뉴스

베트남, 박항서 감독에 3년 재계약 제안

박감독, 신중히 검토 입장

베트남축구협회(VFF)가 박항서 축구 대표팀 감독에게 3년 재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베트남넷과 띠엔퐁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레 호아이 아인 VFF 사무총장은 “박항서 감독의 에이전트와 1차례 협상했다”면서 “3년 재계약을 제안하고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인 사무총장은 또 “현재로서는 에이전트가 호의적이어서 이른 시간 안에 재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감독이 내년부터 3년간 A대표팀과 22세 이하(U-22) 대표팀을 이끌며 달성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20년 아세안 축구연맹(AFF) 스즈키컵 우승, 2021년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SEA)게임에



‘박항서 매직’ 스즈키컵 우승 행진제.

서의 우승, 2022년 AFF 스즈키컵과 2023년 아시안컵 결승 진출이다.

박항서호는 지난해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했고, 오는 11월 SEA 게임에서 60년 만에 첫 우승을 노린다. 지난 1월 있었던 아시안컵에서는 12년 만에 8강에 진출했다.

이 때문에 VFF가 설정한 목표가 다소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감독은 이 같은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 감독의 현재 연봉은 세후 24만 달러(약 2억8000만원)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일론



양상철

융합서예술가·문화칼럼니스트

자연이 관조(觀照)되는 지금 시대에 제주는 천혜의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섬이다. 그러나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내륙과 단절된 절해고도였다.

제주인의 삶은 어땠을까? 한라산 자락 절벽에 붙어 거센 비바람 이겨내는 풀꽃처럼 힘들고 위태로웠다.

적박한 토질에서 땅 흘러 곡식을 얻고, 거친 바다에 몸담아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제주인의 성품은 자연히 투박하고 거칠며, 단순하고 소박하면서도 견고하고 끈질기다.

제주의 풍토와 추사예술(秋史藝術)

고난한 삶 속에 길들여진 이러한 특성은 한 마디로 역경을 이겨내는 도전정신이며, 그야말로 제주풍토가 만들어준 선물과 같은 것이다.

조선왕조 약 500년 동안에 제주도에 유배되었던 유배자의 수는 무려 200여 명에 이른다. 그 중에는 지식을 겸비한 정치가와 학자들이 많아 지방 유생들이 학문과 예술, 사상을 전수 받을 수 있었다. 유배객 중에 특히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9년 동안 대정에서 적거하면서 ‘추사체(秋史體)’와 ‘세한도(歲寒圖)’를 완성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다.

흔히들 추사의 예술을 얘기할 때, 24세 되던 해 생부인 김노경(金魯敬)을 따라 연경(燕京, 지금 北京)에 가서, 당시 금석학의 대가인 옹방강(翁方綱)과 완원(阮元)에게 배웠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청나라의 여러 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추사예술의 토대를 이루고 천부적 소질과 성실함으로 대성하였다고 통설적으로 단정한다.

성실함은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거나 소질은 타고난 것이라서 배움으로 대신할 수 없다. 물론 실학과 금석학의 영향으로 추사가 일찍 눈 뜨고 많은 학문적 성취를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추사의 예술은 추사가 처한 운명이 만들었고, 그 운명이 제주에서 개척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풍토론적으로 보면, 추사가 이룬 예술은 제주풍토에 의한 추사의 정신적 산물이라 해야 맞는 말이다.

삶의 고통과 불안은 실존적 추사체(抽象體)를 만든다. 그러므로 추사의 미학은 아름답기보다는 추사(醜)하고, 편안하기 보다는 불편한 괴(怪)의 숭고성을 갖는다.

추사체의 이러한 독특함은 제주

민간에 전승되는 이야기 중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추사체의 형체가 급하고 험절한 것은 그가 즐겨 올랐던 적소(謫所) 앞 단산(壇山)의 괴벽한 모습에서 착상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추사예술에 대한 제주풍토의 필연성을 읽어 볼 수 있다.

추사에게 단산은 특별한 곳이었다. 그는 단산의 남쪽 편을 끼고 자리 잡은 대정향교에서 유생들을 가르쳤다. 강도순(姜道淳), 김구오(金九五), 박계첩(朴季瞻) 그 외에도 이름 모를 많은 제주 선인들이 그에게서 배움을 구했기에 추사의 예술은 이어졌을 것이다.

추사는 지금에 없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제주인의 가슴 안에는 언제나 ‘추사의 예술혼’이 살아 있다. 163번째 추사 탄신일(음력 6월 3일)을 보내며, 제주풍토와 추사예술의 각별함을 확인하는 일이 새삼스럽다.

동행



고홍일

제주서부경찰서

얼마 전의 일이다. 오랜 지병을 앓고 있던 주민 한분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서부경찰서 한림파출소는 제주시 한림읍, 서부보건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119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대상자를 시내 병원으로 응급입원 조치 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재발 방지를 위해선 꾸준한 입원치료가 필요한데, 병원비 등이 여의치 않은 가정형편임을 알고 우리 경찰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한림읍 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업을 거쳐 제주시로부터 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이끌어냈고 의료비 혜택(분인부담 경감)과 함께 일정액의 월 생계급

열린마당

토양 양분의 지나침에 대한 경계



오상석

제주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여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모든 과정은 신청부터 선정까지 1개월이 넘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했고 계속되는 신고와 출동 속에 이뤄지는 모든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고 모색했다.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직원들 모두 내 일처럼 기뻐했다. 이 모두가 주민의 애환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경찰과 행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자칫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었던 그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려 했던 우리의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보람과 안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민·관·경의 참다운 동행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주위에 관심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우리 모두 지켜보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민이 경찰이고 경찰이 곧 주민이다. 경찰과 행정은 주민 모두의 동반자다. 평소에도 주민을 위한 경찰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신 제주시, 한림읍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본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최근 제시되는 대안은 킬레이트 활용이다. 킬레이트제는 관수방식으로 편리하게 염류를 제거할 수 있고 더불어 비료 사용량을 절감하며 수확량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킬레이트(Chelate)란 그리스어로 ‘집게발’이라 한다. 토양 중의 염 형태로 존재하는 칼륨, 칼슘, 미량원소, 불용화 인산을 분리해 집게발로 잡고 있다가 식물 뿌리가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표적인 킬레이트제로는 DTPA, 구연산이 있다. 오이, 멜론 등 과채류에서는 5L의 찬물에 200g의 수산화칼륨(KOH)을 먼저 녹인 후 DTPA 680g을 녹여서 1주일에 1회씩 관주하면 된다. 상추, 배추 등 엽채류에는 5L의 찬물에 구연산 1.2kg을 녹인 후 1000배로 희석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염류 집적 농도를 낮추고 앞으로는 토양진단 결과에 기초한 합리적인 적량시비와 양분 보유능력 향상으로 지나침에 대한 경계를 한다면 지속적인 농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화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국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유리실생 ●하례조생

●미니향·레몬·영굴

●한리봉 ●히로시마7호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와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중묘

064-733-7005, 010-6677-5753

고개속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증-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원터치자동차약물주입기의 장점※

▶ 사용 및 후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혈압,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기부전클리닉 ▶조루약물주입법

▶전립선클리닉 ▶남성화성기질환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원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 제주은행 2F

제주도정 소식

2019. 7. 15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됩니다.

☞ 중형택시 기본요금(3,300원), 126m당 100원, 3초당 100원, 장거리(20km이상) 126m당 120원

☞ 대형택시 기본요금(4,500원), 133m당 200원, 3초당 200원

2019년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안내

○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 '19. 12. 31(예산 또는 물량 소진 시 까지)

- 접수장소 : 도내 전기자동차 판매처 및 영업점

○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등

○ 지원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1,400만원 지원(자종별 차등 지원)

- 초소형전기차 구매 시 820만원 정액 지원

- 내연기관차 폐차 및 수출할소 시 150만원 추가 지원

- 개소세, 교육세, 취득세 최대 530만원 한도 면제

○ 지원차종 : 24종(승용 21종, 초소형 3종)

○ 문 의 : 저탄소정책과(☎710-2613)

※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안내 참고

2019년도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안내

○ 접수기간 : ~ '19. 12. 27(예산 또는 물량 소진 시 까지)

○ 접 수 처 : 도내 전기이륜차 판매처 및 영업점

○ 지원사항 : 전기이륜차 구매 시 최대 350만원 지원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 시 20만원 추가 지원(단, 6개월 이상 보유 이륜차일 것)

○ 지원차종 : 21종(경형 10종, 소형 3종, 삼륜형 8종)

○ 문 의 : 저탄소정책과(☎710-2614)

※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 안내 참고